

# 도민 모두가 자원봉사자 마음으로 체전 성공 이끈다

### 4028명 활동...도평 검사 지원·행사 보조 등 108개 경기장 배치 봉사 전문가 엄선...심폐소생술 등 안전 교육으로 실전 역량도 높여

목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열리고 있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수준 높은 도민들의 자원봉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2개 시·군 순회교육을 통해 다져진 자원봉사 역량에 고향 사랑이 더해지면서, 402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성공 체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참가자와 방문자들을 위한 경기장 안내에서부터 도평 검사 지원, 개·폐회식 행사 보조, 식수 제공, 쓰레기 줍기, 교통 질서 유지, 건강 체크 등 경기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현장에서 주도하고 있다.

17일 전남도와 전남도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서 4028명을 엄선해 이들을 108개 경기장에 배치했다. 이중 최연소 자원봉사자는 대학생 박은채(18)양이며, 최고령자는 지영애(82) 할머니로 연령별 고른 참가를 보였다. 특히 자원봉

사자 가운데 50~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도 각 시·군에서 지역 사랑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해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봉사 전문가'들로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누구보다 큰 사람들인 탓에 자원봉사의 수준도 그만큼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전남도와 전남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월 1일부터 40여 일 동안 신안군을 시작으로 2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소방 안전, 고객 응대, 장애 이해 등의 분야에 대해 소방서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실시해 실전 역량이 더해졌다.

자원봉사자 김상기(54)씨는 "내 고향에서 언제 다시 치러질 지 모르는 전국체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자원봉사를 하는데 잠시 친척에게 맡겨놓고

경기장에 나와 돕고 있는데 아주 즐겁고 보람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체계적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매뉴얼을 제작하고, 리더교육을 실시한 끝에 지난 9월 자원봉사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허강숙 전남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전국체전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자질과 의욕이 매우 높아 놀랐다"며 "이번 전국체전을 최고의 대회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전남을 알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이 각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자원봉사를 해 오셨으며, 그러한 노하우가 있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전국체전이 이들 자원봉사자들로 인해 전남의 이미지를 전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폐막식까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도면밀하게 대회를 이끌어 가장 모범이 되는 전국체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전남도 지역구 의원들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풍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은 의대 없는 유일 지역...30년 숙원 풀어달라”

###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 국회서 기자회견...국립의대 신설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없는 전남에서 광우에 위치한 전남대병원까지 이송하는 거리가 멀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임이(목포)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전남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지 여부일 것”이라며 “181만 전남도민이

30년간 염원해 온 전남권 의대신설을 정부와 복지부에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명이다.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며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며 “조 장관은 최근 의사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형배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

### 경실련 선정...2위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울) 국회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7일 경실련의 21대 국회 발의법안 평가결과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정치분야에서 92점을 획득해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으로 평가점수는 47점이며, 3위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42점)이다. 민 의원은 이 의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주도했다. 민생정치 복원을 목표로 출범한 운동본부는 금년 7월 7일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분야 법률안 5283개 중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1408개

를 선정해 분석했다.

평가방식은 개혁법안에 1점을 부여하고, 반개혁법안에는 1점을 감점했다. 특히 개혁가치가 두드러진 중점법안에는 10점을 부여했다. 경실련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22개 법안을 개혁적이라 평가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법안이라 판단했다.

민 의원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잊지 않고, 기발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물론 정치혁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 “연예인 마음 건강 취약...심리상담 4배 늘어”

### 이개호 “약물 문제 등 대책 필요”

2022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심리상담을 받는 인원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약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엔제트(MZ)세대 연예인들의 특수한 상황 및 상담 서비스의 제한적 제공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7일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는 총 661명의 대중문화예술인이 2612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았다. 이 결과는 2018년 73명의 상담 인원과 146건의 상담 건수에 비해 2022년에는 상담 인원이 약 9.05배, 상담 건수는 약 17.89배로 급증한 수치이다. 이러한 뚜렷한 증가는 연예인들이 약물을 비

롯한 여러 심리적 문제에 부딪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MZ세대 연예인들은 특히 심리상담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디지털 시대의 고립감, 약물의 직면, 경쟁의 고도화, 정체성 문제, 그리고 공개된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는 연예인들에게 1인당 최대 12회, 1회당 1시간씩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을 위해서는 횟수 제한과 상담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5개 발전사 사고 사상자 82%가 협력사 직원”

### 김경만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안돼”

5개 발전사(남동·남부·서부·동서·중부)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대부분이 외주하청 업체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7일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총 19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발전사 직원은 35명(18%)이며,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협력사 직원은 163명(82%)이며, 사망자는 4명에 달했다. 사망사고의

유형은 폭발 1건, 떨어짐 1건, 물체에 맞음 1건, 감전 1건으로 여전히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산업안전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故 김용균씨 사건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협력사 직원의 사고가 잇따르는 비극을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소속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